

광주·전남 민간아파트 분양가 거침없는 상승세

지난달 광주 평당 1400만원·전남 1000만원 돌파 전년비 두자릿수 증가...광주 매매가도 3.75% 상승

광주·전남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는 지난달 처음으로 평당 평균 분양가가 1400만원을 돌파했고, 전남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상승액도 광주와 전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각각 4번째와 5번째로 많이 오르는 등 상승 속도도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1년 6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달 광주 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429만

5000원이다. 이는 전월 423만6000원 대비 1.39% (5만9000원) 오른 것이다.

1평당 (3.3㎡)으로 계산을 해보면 광주 평균 분양가는 1417만3500원으로, 전월 1397만8800원을 기록한 이후 1400만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59만9400원에 비해서는 12.49%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1년 사이 광주의 신규 민간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57만4100원이나 올랐다.

전남지역 민간아파트 역시 분양가가 크게 오르는 추세다. 지난달 전남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305

만3000원으로, 전월 292만7000원보다 4.3% (12만6000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평당 분양가로 보면 965만9100원에서 1007만4900원으로 한달 만에 41만5800원이 오른 것은 물론,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1평당 분양가가 856만68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1년간 17.6% (150만8100원)나 증가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전년 동월대비 기준 1평당 분양가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985만7100원)와 울산(232만9800원), 서울(158만4000원) 등으로, 이어 광주와 전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번째와 5번째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분양가격지수를 보면 광주는 지난달 183.2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2.49%가 올랐고, 전남도 174.5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7.60%나 증가

했다. 제주(66.06%)와 울산(18.82%)에 이어 전남은 3번째, 광주는 4번째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었다. 분양가격지수는 2014년 기준 평균 분양가를 100으로 환산해 산출한 값을 뜻한다.

한편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주택 매매가격도 전년 대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1-6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2.91%포인트 오른 3.23%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0.02%에서 3.75%로 크게 상승했다.

전남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년보다 0.74%포인트 오른 1.53%를 기록했으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0.07% 상승률에서 올해 1.16%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장성수산' 국민·영구임대 LH,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장성수산' 국민·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성수산'은 영구임대 40호와 국민임대 110호 등 총 150호를 모집한다.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으로,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각 유형별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갖춰야 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난 16일 본점에서 비대면 형식 '2021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

“지역밀착경영·포용금융 강화”

광주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6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2021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한층 강화된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회의는 모든 영업점에 실시간 송출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은행의 올 하반기 중점 추진전략은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 '영역력 강화'를 통한 '기초체력 확보' '선제적 건전성 관리 주력' '경영 효율성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중점 추진전략 등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영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우수 직원·부처에 대한 시상도 진행

했다.

적금·전략대출·신용카드·펀드·방카·퇴직연금 등 각 본부별 영업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올 하반기 과업 공급된 유동성을 서서히 거둬들이는 '태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선제적 대응전략과 혁신을 주문했다.

또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강조되는 시대이지만 그 속에서도 고객의 감정과 온도를 전하는 '휴먼터치' 기술 강화와 지역민·고객의 소통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송 행장은 "하반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며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을 실천해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력 산업 수출 '호황' ...광주·전남 올 상반기 43.3% 증가

가전·타이어·반도체·철강 등 270억8600만달러 달해

광주·전남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해외수출 물류비가 크게 오르면서 지역 수출입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18일 광주부세관의 '2021년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9.5% 증가한 48억3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25.2% 증가한 13억3800만 달러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52.9%나 증가했다. 또 타이어(35.1%)와 반도체(24.1%), 수송장비(16.9%) 등도 증가했다.

전남은 전년 대비 61.5% 증가한 34억9600만 달

러로, 철강제품이 무려 208.8%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석유제품(62.5%)과 화공품(55.6%)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 강세가 이어졌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누계기준 광주·전남 수출 역시 전년 대비 43.3% 증가한 270억8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는 전년 대비 31.88% 오른 79억8257만 달러, 전남은 48.72% 오른 191억393만 달러였다.

이처럼 지역 내 주요 산업계의 수출 호황에도 물류비 급증으로 인해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현재

미주지역 수출을 위한 물류비용은 20피트(ft)짜리 컨테이너 1개당(1TEU) 평균 800만원 정도로, 기존 50만~100만원에 비해 10배 상당 증가했다.

지역과 물품, 규모별로 차이가 크지만 평균 5배 이상 물류비용이 오른 것으로 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협회가 광주·전남 144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물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봐도 수출입 물류비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자사 부담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1%에 달했고, 아예 수출 포기했다는 응답도 6.4%로 나타났다.

지역 수출업계 관계자는 "수출이 회복해도 급등하는 물류비에 소규모 기업의 경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수출물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회원 업체 자문서비스 확대...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추가

광주상공회의소가 회원 업체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상의는 올해부터 기업 경영전략 수립과 연구개발(R&D) 기획,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도입 등을 새롭게 추가해 1대 1 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상의 자문서비스는 기업 내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애로와 급변하는 산업 환경변화에 회원업체가 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 주시 증자 관련 법률지원과 북수노조 설립 대응, 교대제 개편 지원, 교통유발금 경감, 수해 특별재난지역 건의 등 52건의 자문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신기술 도입과 기존 사업간 융

복합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R&D 기획 등 전문가를 추가해 12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서비스는 회비 납부업체에 한해 오는 2024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분석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1대 1 매칭해 컨설팅부터 사후관리까지 밀착관리한다. 분야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만~50만원 정도 발생하는 자문비용은 광주상의가 대담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분야 전문가를 추가했다"며 "스마트폰과 홈페이지를 통해 자문 신청과 접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로또복권 (제97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6	17	23	37	39	2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124,886,244	20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46,870,261	80
3	5개 숫자일치					1,458,997	2,570
4	4개 숫자일치					50,000	126,989
5	3개 숫자일치					5,000	2,122,398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쿠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